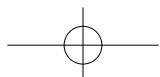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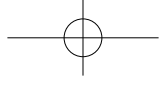
2026 프리미엄브랜드지수 17년 연속 1위
LG 트롬

LG TROMM AI
— Objet Collection

핵심부품 기술력에 AI를 더해 대용량으로 깨끗하고 편리하게 국내 최초·최대 용량의 LG AI 워시 콤보

LG전자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로 세탁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1969년 국내 최초의 백조 세탁기로 세탁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LG전자는 단순한 세탁 기능을 넘어 세탁기와 건조기를 하나로 결합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며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해 왔다.





AI DD 로 더 '강력', '편리', '섬세'

LG 트롬 세탁기는 LG전자의 핵심 부품 기술력과 AI가 결합한 AI DD 모터를 통해 더욱 정교해진 AI로 업그레이드 됐다. 특히, 2026년 출시된 LG 트롬 AI 워시콤보에는 세탁부터 건조까지의 과정을 AI로 케어한다.

세탁물을 넣으면 약 3초 만에 무게를 감지해 코스별 예상 종료시간을 알려주는 'AI 타임센싱' 기능을 갖췄다. 또한 딥러닝 AI 기술로 세탁물의 재질을 분석하고 그에 알맞은 6모션으로 세탁, 세탁량에 알맞게 세제와 유연제를 자동 투입할 뿐만 아니라 세탁 과정에서 오염정도를 확인하여 필요시 세제를 추가 투입해 세탁력을 높인다. 탈수과정에서는 학습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속 회전 여부를 판단하고 6방향 AI 진동센서로 실시간으로 진동을 예측해 세탁물의 뭉침을 줄여 더 안정적으로 탈수한다.

세탁이 완료되면 결과 리포트를 제공해 의류의 특성, 오염도, 세제와 유연제 사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주 사용하는 코스와 옵션을 학습해 'My 코스'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트루스팀으로 더 위생적으로

LG 트롬에는 물을 100℃로 끓여 미세한 스팀 입자를 만드는 LG 전자만의 특허 기술인 트루스팀이 적용되어 있다. 트루스팀 기술은 스팀을 의류에 침투시켜 탈취, 살균, 옷감 주름 완화에 탁월하다. 공인시험인증기관인 KATRI시험연구원 시험결과에 따르면, 트루스팀 기술이 적용된 알러지케어 코스에서 황색포도상구균·녹농균·폐렴간균과 같은 유해세균을 99.99% 살균하고 바이러스를 99.99% 제거한다. 또한 알러지 유발 물질인 집먼지진드기와 개, 고양이 알레르겐을 제거하여 위생적인 세탁이 가능하며, 미세한 스팀으로 건조된 옷감의 구김도 줄여 준다.

워시콤보에는 세탁량을 파악해 3초 만에 코스별 예상 시간을 알려주는 'AI 타임 센싱', 사용 패턴을 학습해 쓸수록 정확하게 예상 건조 시간을 안내하는 'AI 시간 안내'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고객이 직접 케어하기 어려운 드럼에 수도관을 연결해 드럼 내외부를 깨끗하게 세척한 뒤 UV로 케어, 내시경 장비로 상태를 점검해주는 '직수고압세척'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했다.

INTERVIEW



류 재 철 LG전자(주) 대표이사 사장

LG 트롬 세탁기가 17년 연속 프리미엄브랜드지수 1위에 선정된 것은 단순히 제품의 성능만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고객의 삶을 더 편리하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AI 기반 맞춤 세탁, 에너지 절감 기술, 위생 케어, 스마트 진단 등 고객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제품 구매 이후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와 맞춤형 케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수상을 더 큰 책임으로 여기고, 고객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프리미엄 세탁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